

광주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5차회의

광주일보 제 4기 독자위원회 2010년 5차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조경완 편집국장과 김주정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내년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유통구조 파헤친 ‘두 얼굴의 대형마트’ 시리즈 시의 적절”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대해부·함께 열어요 등
굵직한 기획기사 돋보여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여수엑스포 준비 상황
기획시리즈 보도했으면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BUY-광주·전남운동’
중기제품 홍보 큰 도움

이모숙 (송은갤러리 관장)



1면에 많은 광고 배치
중요기사 집중도 방해

조미옥 (나주봉황중학교 교사)



학업성취도 평가 보도
결과보다는 배경 중요

▲김현석(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위원장)=11월 8일 4차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이게 됐다. 오늘날 2010년의 마지막 회의이자 제 4기 독자위원회를 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번 회의 이후의 기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광주일보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철갑(조선대 의과대학 교수)=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인 ‘두 얼굴의 대형마트’ 시리즈를 지난달 9일 1면 보도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연재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구조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또한 기사가 연재되는 동안 북구 대형마트 인허가 과정이나 서구 중앙동의 입점을 둘러싼 중소기업들과의 충돌에 대한 기사들로 지역의 현실을 적절하게 짚어줬다.

하지만 사실보도에 그치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기사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일반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광주지역에는 이들이 해당하는 마트가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소유 지배구조는 어떠한가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영암 F1대회 개최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등 아직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수엑스포도 영암 F1대회와 같이 사후 약방문 격으로 책임 공방만 할까 걱정된다. 지난달 17일 ‘여수엑스포 도로망 큰일났다’ 기사와 18일 사실은 이번 국회 예산안과 관련해 단편적으로만 지적됐다. 현재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획시리즈로 보도했으면 좋겠다.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각각 지난달 10일과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유통업체 간에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광주일보도 ‘두 얼굴의 대형마트’ 기획기사를 시작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매우 시의적절하게 대처했다. 향후에도 정확한 사실 전달도 중요하지만 한 사안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사랑받는 지방신문이 될 것이다.

지역중소기업은 판매나 마케팅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일보가 올 한 해 동안 ‘BUY-광주·전남운동’이란 주제로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우수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데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펼쳐준다면 중소기업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모숙(송은갤러리 관장)=지난달 12일 7면 ‘빛 잃은 광엑스포 주제영상관’에 대한 보도가 인상깊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전혀 몰랐던 광엑스포 주제전시관의 문제와 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좋은 지적이었다. 이후에도 시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감독·점검 등 지역민의 알 권리에 광주일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지난달 30일 12면 ‘관객 배려 부족한 광주 문예회관’ 보도도 평소 문예회관을 이용하면서 느껴왔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줬다. 광주가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문예회관이 공연문화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

올 한 해 동안 광주일보를 보면서 신문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선 신문의 지면이 지나치게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1면에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배치하면서 중요기사의 집중도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내년부터는 광주일보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미옥(나주봉황중학교 교사)=올 한 해 동안 광주일보의 교육 관련 기사를 분석해 왔다. 특히 기획 ‘광주·전남 대학탐방’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21회에 걸쳐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분석을 보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됐다. 또한 미래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의도로 ‘교육을 생각하다’는 칼럼을 연재한 것은 다른 언론과의 차별화를 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7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너무 결과에만 치중했다. 농산어촌 학교 학력 저조하게 된 배경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에 언급하며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 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느 학교가 성취도가 높음에 더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특목고는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가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입학에 기피하는 소위 하위권 학교의 성취도 평가는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언론은 학교의 입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입학 당시의 학업능력 평가와 성취도 평가 이후의 향상도를 심층 분석하여 가장 향상도가 높은 학교를 부각시켜 보도하여야 한다. 교육은 누구나 일등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소명감이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광주일보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며 선정성 광고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은 광주일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광주일보를 매개로 농촌학교에 아를 다룬 나눔 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컸다.

▲임선숙(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대입수험능력고사기 끝난 뒤 입시정보에 목마른 지역 학부모들이 서울까지 오가면서 눈술과, 입학설명회를 다니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의 현실을 다룬 기사가 지난달 23일, 26일 보도되고, 24일에는 사실로 보도됐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는 공감 하지만 전정을 요양에 둔 지금 시점에서 현재 대학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사 속에 보충되거나 이후 기사화됐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눈술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대학의 눈술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알려주거나, 눈술 작성시 유의사항이나 요령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보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일보 독자위원으로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광주일보는 여전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신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달란 것이다.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 지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지역의 미래를 가꾸는 일에 정확한 사실과 논평, 기획기사들을 통해 지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의 정치·경제권력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을 하는데 광주일보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앞으로

임선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광주·전남 대표신문
정보제공·감시 충실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



區간 경계조정 보도
분석력·객관성 떨어져

도 광주일보가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문으로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함께 써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문상필(광주시의회 의원)=지난 1일 ‘광주 구 경계조정 어떻게 되나’, ‘광주시 구간 경계조정 미적거리다 큰일’, 2일 사실 ‘광주 구 경계조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3일 ‘광주 구간 경계조정 논의 시작’ 등 광주일보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구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고 있다. 하지만 구 경계조정은 정확한 분석이나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보도해야 한다. 광주일보는 현재 한 구의 입장에 치중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장기적으로 광주의 자의적인 균형발전 측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해 주길 바란다.

올 한 해 동안 광주일보는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꾸준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현석(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전통 매체의 강점은 심층 기획취재를 통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광주일보는 한 해 동안 ‘광주·전남 대해부’,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등의 굵직한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등 나침반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광주일보의 지면 편집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신문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사를 통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문제해석과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편집은 뉴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이나 탈(脫) 활자화 현상 등 페이퍼신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환경변화 속에서 더욱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정리=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송년, 신년 모임도 아리랑 하우스 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소중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빈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벽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에이**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하우스 **문의** **525-2111**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울 연인과 함께!!**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1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 (전제)
2관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 (15세)	2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제)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제)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제)
4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제)	4관 스카이라인 (12세)/ 세미의어드벤처 (전제)
5관 투어리스트 (15세)	5관 김종욱 찾기 (12세)
6관 워리어스웨이 (15세)	6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제대한 로맨스 (18세)
7관 김종욱 찾기 (12세)	7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8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 (전제)	8관 해리포터 (전제)/ 김종욱 찾기 (12세)
9관 세미의어드벤처 (전제)	9관 투어리스트 (15세)
10관 투어리스트 (15세)	10관 워리어스웨이 (15세)/ 세미의어드벤처 (전제)

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항도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자랑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8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최고급관**
2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전제)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4관 **투어리스트**(15세)/**제대한 로맨스** (18세)
5관 **세미의어드벤처**(전제)/**나니아연대기**(전제)
6관 **김종욱 찾기**(12세)
7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8관 **김종욱 찾기**(12세)
9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랑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2관 **투어리스트**(15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4관 **스위치**(15세)/**세미의어드벤처3D터빙**(전제)
5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전제)
6관 **김종욱 찾기**(12세)
7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